



# 보도자료

책임자 손재희 실장(소비자디지털연구실, 3775-9023)  
작성자 손재희 연구위원(3775-99023)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3775-9115)

보도 2024. 3. 7(목) 조간부터  
(온라인 2024. 3. 6(수) 12:00부터)  
매수 총 4매

## 보험연구원, 『전자금융업 개편과 보험회사 대응방안』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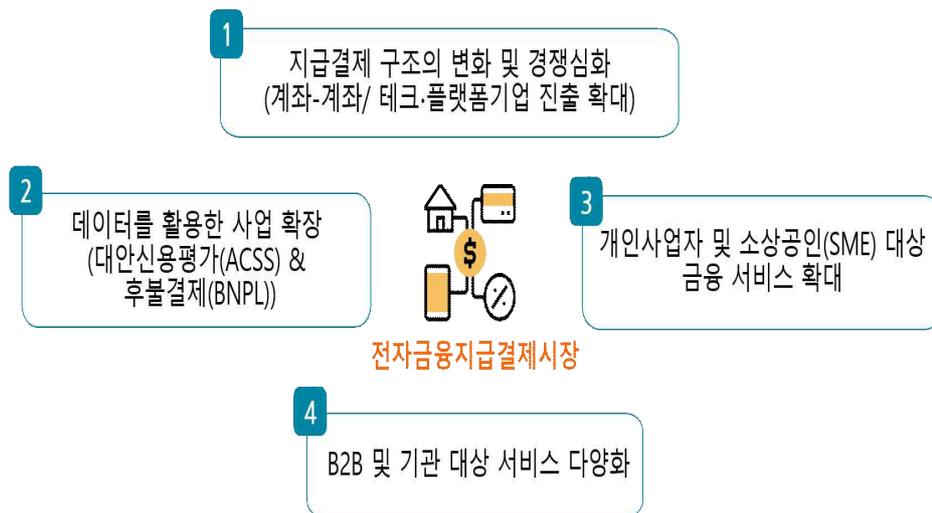
“보험산업은 전자지급결제업이 보유한 고객 접점과 이를 통해 얻어지는 데이터를 활용해 채널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사업 기회를 획득해야”

- 보험연구원 손재희 연구위원(소비자·디지털연구실장)은 디지털 기반 소비가 일상화되어 가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금융시장 변화를 살펴보고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제시를 위해 『전자금융업 개편과 보험회사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함
  - 저성장 환경에서 보험산업의 신사업 기회를 획득하고 소비자 접점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으로 요구됨
-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 내용) 2020년 전금법 개정은 ① 전자금융업종의 기능별 통합 및 간소화, ②진입 규제 완화, ③소액후불결제서비스의 도입, ④이용자 자금의 보호 의무화를 핵심 골자로 발의된 바 있으며, 2023년 선불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중심으로 발의된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됨
  - 마이페이먼트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새로운 전자금융업이 포함된 2020년 전금법 개정안은 현재 처리되지 않은 상태이며, 2023년 통과된 개정안(2024년 9월 시행예정)은 시장 규모가 증가한 전자선불업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강화와 선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업 허용을 포함하고 있음

- (지급결제시장 환경 변화의 특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전자금융업 개편이 예상되며, 이는 향후 지급결제시장 내 ① 지급결제 구조의 변화 및 비금융기업 진출 확대에 따른 경쟁심화 ②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확장 ③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금융서비스의 확대 ④ B2B 및 기관 대상 서비스의 다양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지급결제방식은 계좌 기반(계좌-계좌)으로 변화될 것이며 상품 구매 시 지급결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지급결제의 내재화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 오픈뱅킹, 마이데이터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전자금융시장 내 신사업을 다양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다양한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나아가 경쟁이 심화된 B2C 시장에서 벗어나 B2B 시장으로의 진입이 증가하고 이들 니즈에 맞춘 다양한 분석서비스를 제공해 부가가치를 높일 것을 보임

<그림 1> 전자금융업 개편으로 인한 전자금융지급결제시장 환경 변화의 특징



□ (해외 보험시장의 전자지급결제업 활용 현황) 전자금융업 관련 제도가 발달된 해외시장에서 보험회사 및 인슈어테크의 활용 사례를 살펴본 결과, 선불카드 활용과 후불결제서비스(Buy Now Pay Later, BNPL)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BNPL을 제공하는 물품 판매회사가 구매자로부터 대금의 미지급 혹은 지연지급 발생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음

- 싱가포르 기반 디지털 보험회사인 Singlife는 모바일 페이먼트 기업 Canvas를 인수하여 선불카드를 제공하며, Singlife Phillippine은 E-Wallet과 함께 선불카드를 제공함
- 보험료 지불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주 인슈어테크인 Coverpay는 보험상품 구매 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BNPL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Allianz Trade와 Covergenius는 BNPL 서비스 제공에 따른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 (전자금융업 개편에 따른 보험산업의 기회) 국내 보험산업은 전자지급결제업이 보유한 고객 접점과 이를 통해 얻어지는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디지털 보험소비경험을 제공하고 신사업 기회를 확보해야 할 것임

- 전자지급결제시장의 변화는 보험회사에게 고객 접점의 확대와 디지털 기반 보험상품의 경쟁력 확보, 데이터 기반 신사업 추진이라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됨
- 하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시장지위 약화와 새로운 시장영역에서의 선점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음

<그림 2> 전자금융지급결제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영향(요약)



- (시사점) 보험산업은 디지털화가 고도화되고 있는 시장에서 지급결제 행위가 이제 고객경험의 부수적인 차원이 아닌 고객경험 자체가 되어가고 있음을 인지하고, 전자지급결제를 중심으로 한 전자금융시장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헬스케어서비스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선불업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예: 선불 카드를 활용한 홈케어서비스, 요양서비스 등 비용 지불) 제공이 가능할 것임
  - 또한 전자금융업자들 및 인슈어테크의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금융서비스 확대 및 서비스 다양화 등 사업확장 모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단, 지급결제 서비스 자체가 직접적으로 수익을 보장해주지 않으며 지급결제시장 진입 혹은 활용에 따른 시스템 구축 등과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과 투자가 요구됨
- 나아가 보험산업 내 전자금융서비스가 안정적이고 포용성을 갖춘 서비스로 활용되기 위해서 활용 확대에 따른 다양한 위험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전자금융서비스 활용에 따른 소비자의 자금 및 개인정보 보호가 요구되며 전자결제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이 필요함
  - 전자금융서비스 활용에 따른 사이버 공격과 전산설비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관리 시스템 및 전담 인력 확보, 내부통제 강화 등이 마련되어야 함

첨부: 연구보고서 『전자금융업 개편과 보험회사 대응방안』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http://www.kiri.or.kr>)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